

## 남자 고등학생의 권태성향과 분노행동 간의 관계

임 지 영\*

### 초 록

본 연구는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권태성향과 분노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한편, 분노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권태성향 외에 다른 관련 변인들, 즉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낮은 인내력, Type A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남자 고등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권태성향척도 단축형의 외적 및 내적 자극요인에서 상, 하위 20%씩을 각각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 고, 저집단으로 분류하고 분노행동척도,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 Type A 척도 점수를 비교하였다. 외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분노행동 중에서 직접표출 및 반추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더 충동적, 감각추구적이고, 인내력도 낮았던 반면,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분노행동 중에서 자기표현 및 분산을 덜 하며, 충동적, 감각추구적인 성향과 Type A 특성도 적었다. 분노행동 예측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 외적 권태성향이 직접표출 및 반추를, 내적 권태성향이 자기표현 및 분산을 예측하는 능력은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 그리고 Type A 성향 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권태성향, 분노행동, 고등학생

\*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 I. 서론

권태란 외부환경이 지나치게 단조롭다고 지각될 때 발생하는 불만족스러운 심리상태(Berlyne, 1960)로서, '불쾌함, 실증, 공허함, 무관심' 등의 심리적 상태와 이런 상태를 유도하는 '단조롭고, 반복적이며, 다양한 종류의 자극이 결여된 환경'으로 정의되기도 한다(Sunberg & Bisno, 1983). 권태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Bernstein, 1975; Sundberg, Latkin, Farmer, & Saoud, 1991)에 따르면 권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양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한다. 하나는 상황적 요소에 의해 발생, 소멸되는 반응적 권태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 내적 요소들에 의해 발생하는 특성적 권태이다. 지각된 권태감은 상황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태성향(boredom proneness)이란 개입과 열정이 결여되어 지루하다고 느끼기 쉬운 개인적 취약성을 지칭하며, 외부 상황과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한다(Sundberg, Latkin, Farmer, & Saoud, 1991).

권태성향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교육, 심리학, 조직행동, 사고 예방, 의약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권태성향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심리적, 행동적 결과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높은 권태성향은 낮은 학업 성취(Maroldo, 1986), 직무 불만족(Kass, Vodanovich, & Callender, 2001), 섭식장애(Ganley, 1989), 음주행위(배경미, 2003), 청소년들의 약물남용(Greene, Krcmar, Walter, Rubin, & Hale, 2000) 및 위험한 운전행위(Arnett, 1990)를 포함하여 일탈행동(Ayoade & Adegoke, 2007), 도박중독(Blaszczyński, McConaghy, & Frankova, 1990) 등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권태성향은 충동성(Watt & Vodanovich, 1992), 감각추구성향(Kass & Vodanovich, 1990), 분노 및 적대감(Rupp & Vodanovich, 1990), 우울(Farmer & Sundberg, 1990) 등과도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권태를 경험하는 경향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심리적, 행동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개인적 특성인 권태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Farmer와 Sundberg(1986)는 28개 문항으로 구성된 권태성향척도(Boredom Proneness Scale; BPS)를 개발했다. 후속 연구들(Gordon, Wilkinson, McGown, & Jovanoska, 1997; Vodanovich & Kass, 1990)을 통해 권태성향척도는 2~5개의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보고되었다. 다섯 개의 요인들로는 외적 자극(external stimulation), 내적 자극(internal stimulation), 정서적 반응

(affective response), 시간 지각(perception of time), 그리고 억제(constraint)가 포함된다. '외적 자극'요인은 흥미, 도전, 외부 상황의 변화와 같이 외부적인 자극을 증가시키려는 욕구를 측정하고, '내적 자극' 요인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과 같이 내부적인 자극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측정한다. 외적 자극척도 점수의 상승은 외부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권태를 느끼는 경향을 반영하며, 내적 자극척도 점수의 상승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향을 반영한다. '정서적 반응' 요인은 권태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측정하며, '시간 지각' 요인은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 지각하는 경향을 측정하며, '억제'요인은 기다림에 대한 반응을 측정한다. 이들 5개의 요인들 중에서 권태성향척도의 요인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된 두 개의 강력한 요인들은 외적 자극과 내적 자극 요인으로서, Vodanovich, Wallace, 그리고 Kass(2005)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이 두 요인들로 이루어진 권태성향척도 단축형의 심리측정적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권태성향과 분노간의 관계를 알아본 Rupp과 Vodanovich(1997)의 연구에서는 권태성향척도 총점의 중앙치(median)를 기준으로 전반적인 권태성향이 높은 대학생과 낮은 대학생으로 분류한 후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Spielberger, 1996)와 공격성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Buss& Perry, 1992)를 이용하여 두 집단의 분노 및 공격성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권태성향총점이 높은 대학생일수록 분노억제(anger suppression)경향과 외부로의 분노표출(outward anger expression)경향이 더 높았으며, 공격성과 적대감도 더 높았고, 비적응적인 분노통제(anger control)양상을 보였다. 또한 외적 및 내적 자극척도 각각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외적 또는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을 비교한 결과, 외적 권태성향<sup>1)</sup>이 높은 집단은 외적 권태성향이 낮은 집단에 비해 공격성척도에서의 언어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 및 전반적인 공격성 점수가 더 높았고,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에서의 분노억제와 분노표출 점수도 더 높았다. 한편, 내적 권태성향<sup>2)</sup>이 높은 집단은 내적 권태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분노억제 점수는 높았고, 분노통제 점수는 낮았다. 분노와 공격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단계적 회귀분석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들이 확인되었다.

1) 외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권태를 느끼기 쉬운 경향을 외적 권태성향이라 지칭함.

2) 내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권태를 느끼기 쉬운 경향을 내적 권태성향이라 지칭함.

최근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된 Dahlen, Martin, Ragan, 그리고 Kuhlman(2004)의 연구에서는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개정판(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2; STAXI-2; Spielberger, 1999)과 공격성척도(Aggression Questionnaire; Buss & Perry, 1992)를 이용하여 Rupp과 Vodanovich(1997)의 연구보고를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개정판(STAXI-2)에 포함된 특성분노(Trait anger) 점수도 전반적인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Dahlen 등(2004)은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이 분노 및 공격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감각추구(Sensation seeking) 성향과 충동성(impulsiveness)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적 권태성향은 외부로의 분노표출, 분노통제능력의 결여, 그리고 공격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감각추구성향과 충동성 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적 권태성향은 분노 및 공격성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전반적인 권태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권태성향이 낮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이고 특성분노수준이 높으며, 역기능적인 분노표출과 분노 억제 경향이 더 높고, 분노 통제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권태성향의 하위변인 중 특히 외부 자극이 부족해서 권태를 느끼는 외적 권태성향은 분노표출 및 통제와 공격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감각추구성향과 충동성의 영향을 고려한 후에도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임으로써 분노와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구성개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Dahlen 등(2004)의 연구를 통해 분노표현 및 공격성을 예언하는 데 있어 권태성향이 감각추구성향과 충동성보다 더 큰 설명력을 지닌 변인으로 나타났다지만, 분노 및 공격성, 그리고 권태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Ahmed, 1990; Farmer & Sundberg, 1986; Kass & Vodanovich, 1990; Martin and Dahlen, 2004; Watt & Vodanovich, 1992)된 다른 변인들, 특히 낮은 인내력(low frustration tolerance), Type A 성향, 부정적 정서, 적대적 사고 등과 같은 변인들이 분노 및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권태성향과 비교하여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즉, 권태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충동적, 자극추구적이며, 우울, 불안, 대인 민감성이 높고, Type A 성향과도 상관이 높다고 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분노와 공격성을 비롯한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권태성향은 부적응 내지 행동통제 부족의 지표로 생각될 수 있으며(Boden, 2009), 충동성을 비롯하여 권태성향과 관련된 변인들이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노의 측정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되는 도구들 중의 하나로서 상기(上記)한 권태성향 관련 연구들(Dahlen, Martin, Ragan, & Kuhlman, 2004; Rupp & Vodanovich, 1997)에서도 사용되었던 도구가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 Spielberger, 1996)이다. 이 도구는 분노의 경험적 측면을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분노의 표현적 측면은 분노표출, 분노억제, 분노통제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STAXI; Spielberger, 1996)는 분노만을 측정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분노표현을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로 구분하여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조현춘, 이근배, 2007). 따라서 분노표현을 보다 다양하게 측정하기 위해 Linden 등(2003)은 분노행동척도(Behavioral Anger Response Questionnaire; BARQ)를 개발하였다. Linden 등(2003)에 따르면, 분노표현은 직접 분노표출(direct anger-out), 자기표현(Assertion), 사회적 지지추구(support-seeking), 분산(diffusion), 회피(avoidance), 반추(rumination)로 구분되는 6요인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직접 분노표출은 언어적, 행동적으로 분노를 직접 나타내는 것이고, 자기표현은 문제해결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비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며, 사회적 지지추구는 친한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하소연하거나 지지를 얻는 것이다. 분산은 다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분노를 삭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회피는 분노를 유발한 사건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반추는 분노 유발 사건에 대해 거듭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분노를 외부로 직접 나타내거나 나타내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직접 분노표출과 회피는 양극단에 위치하고, 자기표현, 사회적 지지 추구, 분산은 그 사이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자기표현은 직접적인 분노표출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건설적인 분노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조현춘, 이근배, 2007 재인용; Linden, Hogan, Rutledge, Chawla, Lenz, & Leung, 2003). 이와 같이 분노행동척도는 심리상담이나 치료, 일상생활에서 분노문제를 다룰 때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와 같은 이분법적 분류가 분노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충분하지 않으며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조현춘, 이근배, 2007).

선행연구보고들을 종합하면, 권태성향, 특히 외적 권태성향은 분노표현 및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분노의 표현은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

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권태를 느끼는 성향인 외적 권태성향이 분노와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이며, 외적 권태성향의 이러한 설명력은 감각추구성향 및 충동성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준 Dahlen 등(2004)의 연구를 한국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증,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분노표현을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로 이분했던 Dahlen 등(2004)의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Linden 등(2003)이 제안한 바와 같이 분노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는 분노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둘째, 권태성향 및 분노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변인들인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낮은 인내력 및 Type A 특성을 설명변인으로 추가하여 다양한 분노표현, 즉 분노행동<sup>3)</sup>을 예측하는 데 있어 권태성향과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 모델을 사용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경기 및 충남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고등학생 29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11명이 제외되어 최종분석에는 281명이 포함되었다. 학년분포<sup>4)</sup>는 1학년 225명, 2학년 56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15.86세(SD=.92)였다.

### 2. 연구도구

#### 1) 권태성향척도 단축형

권태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Farmer와 Sundberg(1986)가 개발한 권태성향척도(Boredom Proneness Scale; BPS)는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Vodanovich, Wallace, 그리

---

3) Linden 등(2003)은 분노행동척도를 개발하며 다양한 분노표현을 분노행동으로 지칭함.

4) 2, 3학년은 수업 및 입시준비관계로 다수 학생의 협조를 얻기 어려웠음

고 Kass(2005)는 권태성향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외적 자극(6문항)과 내적 자극(6문항)의 2요인, 12문항으로 구성된 권태성향척도 단축형을 개발하고 심리 측정적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내적 자극요인 .86, 외적 자극요인 .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경미(2003)가 번역한 권태성향척도의 문항들 중에서 권태성향척도 단축형과 중복되는 문항의 번안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는 내적 자극과 외적 자극 요인 모두 .77이었다.

## 2) 한국판 분노행동척도

분노행동척도(Behavioral Anger Response Questionnaire; BARQ)는 Linden 등(2003)이 분노표현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좌절되거나 화나는 상황에서 각 문항이 나타내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직접 분노표출(direct anger-out), 자기표현(Assertion), 사회적 지지추구(support-seeking), 분산(diffusion), 회피(avoidance), 반추(rumination) 등의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징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는 .65~.85로 보고되었다. 한국판 분노행동척도(K-BARQ)는 조현준과 이근배(2007)가 번안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쳐 개발되었다. 분노행동척도의 원판에 포함된 문항들 중에서 6문항은 예비 연구 과정에서 설명력이 낮거나 변별력이 낮아 제외됨으로써 최종적으로 31문항, 6요인으로 구성된 한국판 분노행동척도가 완성되었다. 한국판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는 하위 척도에 따라 .70~.84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67~.81이었다.

## 3) 충동성척도

충동성척도(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는 Barratt(1959)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무계획적이거나 행동적, 인지적 측면에서의 충동적인 성향을 측정하는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국

내에서는 이현수(1992)가 번안했고,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65~.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 4) 한국형 감각추구척도

감각추구척도(Sensation Seeking Scale; SSS)는 Zuckerman, Kolin, Price, 그리고 Zoob(1964)에 의해 개발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로 '신체적, 사회적, 법적,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양하고 신기하며, 복잡하고, 강한 감각이나 경험을 추구하려는 욕구'인 감각추구경향을 측정한다. 문항의 내용은 스릴과 모험추구(Thrill and Adventure Seeking), 경험추구(Experience Seeking), 권태 민감성(Boredom Susceptibility), 그리고 탈제지(Disinhibition) 등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번안하여 사용했는데, 유진과 강필중(2003)은 우리의 문화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된 문항들을 수정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쳐 4요인, 28문항으로 구성된 한국형 감각추구척도를 완성하였다. 응답은 4점 척도 상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유진과 강필중(2003)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는 하위요인에 따라 .67~.83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의 구분없이 감각추구척도 전체를 사용하였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91이었다.

#### 5) 낮은 인내력척도

불편감이나 좌절에 대한 낮은 인내력척도는 DiGiuseppe, Leaf, Exner, 그리고 Robin(1988)이 개발한 수정판 일반적 태도 및 신념척도(Revised General Attitude and Belief Scale; R-GABS)에 포함된 하위척도들 중의 하나이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서수균과 권석만(2006)이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1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는 .82였다.



## 6) Type A 척도

Type A 척도(Haynes, Levine, Scotch, Feinleib, & Kannel, 1978)는 A형 행동유형의 특징을 측정하는 검사로서, 총 10개 문항 중에서 5문항은 진위형 반응으로, 그리고 나머지 5문항은 4점 척도 상에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유희정(1990)이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6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alpha$ )는 .67이었다.

## 3. 분석

첫째, 연구에 포함된 각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권태성향척도 단축형의 두 하위요인들인 외적 자극요인과 내적 자극요인 각각에 대해 상, 하위 20%에 해당하는 집단을 외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 $n=57$ )과 낮은 집단( $n=58$ ), 그리고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 $n=54$ )과 낮은 집단( $n=66$ )으로 분류하였다.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분노행동척도의 하위척도들, 감각추구척도, 충동성척도, 낮은 인내력척도, 그리고 Type A 척도 평균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노행동척도의 각 하위요인들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낮은 인내력, 그리고 Type A 성향이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과 비교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노행동척도의 하위요인들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투입하는 일련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낮은 인내력, Type A 척도를 예언변인으로 투입하였다.

## III. 결 과

### 1. 상관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각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권태성향

척도 단축형의 하위요인들 중 외적 자극요인은 분노행동척도 전체 (.19) 및 분노행동척도의 하위척도들 중에서 직접표출 및 반추와 .37~.38의 정적 상관을 보였고,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척도와는 .22~.32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내적 자극요인은 분노행동척도 전체(-.12) 및 분노행동척도의 하위척도들 중에서 자기표현, 분산, 회피와 -.26 ~-.31의 부적상관을 보였고, 충동성, 감각추구, Type A 척도와는 -.19~-.24의 부적상관을 보였다.

## 2.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평균 비교

〈표 2〉에는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분노행동,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 그리고 Type A 척도 평균 점수 및 표준편차, 그리고 평균차 검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외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분노행동척도 평균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04,  $F(6,108)$  = 3.96,  $p < .001$ ). 어느 척도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외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분노행동척도 전체와 분노행동척도의 하위척도 중 직접표출 및 반추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또한 외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의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척도 점수가 외적 권태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분노행동척도 평균점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MANOVA)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bda$  = .04,  $F(6,113)$  = 4.56,  $p < .001$ ). 이어서 실시된 일원변량분석 결과,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분노행동척도의 하위척도 중 자기표현 및 분산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고, 충동성, 감각추구, Type A 척도 점수도 더 낮았다.

<표 1> 척도들 간의 상관관계

	BPext	BPint	분노행동	사회적지지	직접표출	반추	자기표현	분산	회피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인내력
BPext												
BPint	.09											
분노행동	.19**	-.12*										
사회적지지	.09	-.02	.77**									
직접표출	.37**	-.07	.68**	.39**								
반추	.38**	.07	.69**	.42**	.51**							
자기표현	-.02	-.26**	.68**	.46**	.26**	.24**						
분산	.14*	-.31**	.67**	.44**	.29**	.28**	.45**					
회피	.08	-.28**	.37**	.21**	.02	.09	.23**	.30**				
충동성	.32*	-.24**	.36**	.21**	.35**	.26**	.19**	.28**	.07			
감각추구	.22*	-.20**	.29**	.10	.32**	.21**	.19**	.25**	.03	.55**		
낮은인내력	.25**	.02	.43**	.35**	.40**	.39**	.18**	.19**	.11*	.30**	.19**	
A형	-.01	-.19**	.23**	.13*	.21**	.13*	.13*	.23**	.05	.44**	.27**	.16**

주. \* p<.05. \*\* p<.01. \*\*\*p<.001.

<표 2>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척도 평균, 표준편차, 및 평균차 검증

	BPext						BPint					
	Low (n=58)		High (n=57)		F		Low (n=66)		High (n=54)		F	
	M	SD	M	SD		M	SD	M	SD		M	SD
분노-행동진체	70.94	18.33	80.57	18.53	7.85**	78.31	17.78	73.09	15.96	2.81		
사회적지지	13.25	5.06	14.80	5.73	2.36	13.77	5.21	13.55	4.71	.06		
직접표출	12.86	5.10	15.49	4.98	7.82**	15.15	5.44	14.40	4.92	.60		
반추	10.65	4.35	15.22	5.60	23.89***	12.51	4.54	13.72	5.19	1.84		
자기표현	15.15	4.99	14.56	4.66	.43	16.34	5.44	13.81	4.17	7.89**		
분산	10.22	3.34	11.15	4.39	1.64	11.36	4.00	9.25	3.01	10.17**		
회피	8.79	3.27	9.33	2.55	.97	9.16	3.13	8.33	2.72	2.36		
충동성	50.94	10.64	55.89	9.26	6.96*	57.21	10.66	49.75	11.05	13.86***		
감각추구	64.40	16.94	70.15	12.75	4.19*	73.79	14.12	62.15	12.93	21.49***		
낮은 인내력	14.75	5.44	17.08	5.77	4.95*	15.38	5.68	15.29	5.52	.01		
A형	18.98	2.63	19.16	2.67	.13	20.26	2.82	18.75	2.51	9.17**		

주. BPext: 외적 권태성향 ; BPint: 내적 권태성향

\* p<.05. \*\* p<.01. \*\*\*p<.001.

### 3. 분노행동 예측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표 3〉에는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이 분노행동척도의 하위변인들 각각을 예측하는데 있어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 그리고 Type A 성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분노행동 중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경우,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은 모두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직접표출과 반추에 대한 예언의 경우, 외적 권태성향은 다른 변인들, 즉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 Type A 성향을 예언변인으로 투입한 후에도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표현과 분산에 대한 예언의 경우, 내적 권태성향은 다른 변인들이 투입된 후에도 유의미한 예언력을 나타냈다. 회피의 경우, 내적 권태성향은 1단계에서는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였으나, 다른 변인들이 투입된 후에는 유의미한 예언변인이 되지 못했다. 또한 낮은 인내력은 자기표현을 제외한 분노행동의 모든 하위척도들을 유의미하게 예언하였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권태성향, 특히 외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권태를 느끼는 성향이 분노와 공격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임을 보여준 선행연구 보고(Dahlen et al., 2004)를 확장하는 시도에서 수행되었다.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권태성향이 분노행동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분노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다른 관련 변인들, 즉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 그리고 Type A 성향이 권태성향과 비교하여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상관관계 비교 결과, 외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권태를 느끼는 것과 관련된 외적 자극요인은 분노행동 중 반추 및 직접표출과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외적 권태성향이 높을수록 반추를 통한 분노의 증폭과 공격적 행동의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반면, 내적인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기 어려워 권태를 느끼는 것과 관련된 내적 자극요인은 분노행동 중 자기표현, 분산 및 회피와 부적상관을 보임으로써, 내적 권태성향이 높을수록 분노 조절 및 억제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3> 분노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예언변인	$R^2$	$R^2 \Delta$	$F_{change}$	$\beta$	$t$
사회적지지	1단계	.01		1.32		
직접표출	1단계	.03		5.34**		
반추	1단계	.07		11.58***		

남자 고등학생의 권태성향과 분노행동 간의 관계

종속변인	예언변인	$R^2$	$R^2 \Delta$	$F_{change}$	$\beta$	$t$
자기표현	1단계	.04		6.09**		
					.09	1.58
					-.19	-3.25**
	2단계	.05	.01	2.30*		
					-.01	-.21
					.00	-.05
					.09	1.45
					.01	.09
					.07	1.19
					-.19	-3.08**
분산	1단계	.07		10.20***		
					.15	2.73**
					-.22	-3.84***
	2단계	.16	.10	8.47***		
					.11	1.72
					.08	1.08
					.14	2.35*
					.11	1.81
					.10	1.83
					-.15	-2.65**
회피	1단계	.02		3.70*		
					-.01	-.09
					-.16	-2.7**
	2단계	.09	.06	4.13**		
					.13	1.89
					.03	.49
					.14	2.34*
					.03	.49
					-.07	-1.20
					-.11	-1.75

주. BPext: 외적 권태성향 ; BPint: 내적 권태성향.

\* p<.05. \*\* p<.01. \*\*\*p<.001.

평균 비교 결과, 외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전반적인 분노행동수준이 더 높고, 분노행동 중에서 직접표출 및 반추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으며, 더 충동적이고 감각추구적이며, 인내력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외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분노와 공격성 수준이 더 높고, 분노억제 및 분노표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보고(Rupp & Vodanovich, 199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외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권태를 느끼기 쉬운 청소년들은 외부로 직접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크며, 분노 경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반추)함으로써 분노경험이 계속 유지되어 새로운 분노 자극에 대해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치환된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노를 외부로 직접 표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분노표출에 대해 심리적 혼란을 겪으며 분노사건에 대해 자꾸 생각(반추)하게 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Linden et al., 2003). 특히 반추요인은 최근 분노와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강조되고 있어 심리상담 및 치료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연구보고에 따르면,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만족도나 주관적 안녕감이 낮고(한덕용, 박준호, 2003), 특성 분노가 높은 사람은 분노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Earle, Linden, & Weinberg, 1999)고 한다. 또한 분노를 억제하게 되는 경우 분노감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함으로써 신체적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한다(이경순, 김교현, 2000). 따라서 외적 권태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분노조절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과정에서 비적응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직접 표출하는 문제 뿐 아니라, 분노 경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분노반추경향을 다루는 개입방법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분노행동 중에서 자기표현 및 분산을 덜 하며, 충동적, 감각추구적인 성향과 Type A 특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노표현을 단순히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로 분류하여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집단이 내적 권태성향이 낮은 집단보다 분노억제를 더 많이 하고 분노통제는 적게 한다거나(Rupp & Vodanovich, 1997) 내적 권태성향은 분노표현을 예측하는 능력이 없다(Dahlen, Martin, Ragan, & Kuhlman, 2004)는 선행연구보고에 비해 내적 권태성



향이 높은 집단의 분노 표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내적으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지속시키기 어려워져 쉽사리 권태를 느끼는 청소년들은 분노사건을 경험했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자기감정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다른 일을 함으로써 분노감정을 줄이지도 못하는 등 분노감정의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권태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의 분노조절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과정에서 건설적인 분노표출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표현(Linden et al., 2003)을 비롯하여 적응적인 분노조절 전략을 다루는 개입방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노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외적 권태성향이 직접표출 및 반추를, 내적 권태성향이 자기표현 및 분산을 예측하는 능력이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 그리고 Type A 성향 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유의미하게 남아 있음을 나타냈다. 비록 낮은 인내력 변인이 자기표현을 제외한 분노행동의 모든 하위요인들을 유의미하게 예언하기는 했지만, 권태성향은 일부 분노행동들의 유의미한 예언변인으로 남아 있었다. 이런 결과는 외적 권태성향이 분노표출 및 통제, 공격성을 예측하는 데 있어 감각추구성향과 충동성 변인을 투입한 후에도 유의미한 예언력을 보였다는 선행 연구보고(Dahlen et al., 200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내적 권태성향의 경우, 내적 권태성향이 분노 및 공격성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Dahlen 등(2004)의 연구보고와는 대조적인 결과가 얻어졌는데, 이는 분노의 표현에 대해 분노표출 및 분노억제로 이분했던 Dahlen 등(2004)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Linden 등(2003)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분노가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분노행동척도를 활용함으로써 분노의 표현에 대해 다차원적 접근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Dahlen 등(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외적 권태성향과 내적 권태성향이 Dahlen 등(2004)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구성개념임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간의 상관관계( $r$ )는 .09로서 매우 낮았다. 또한 외적 권태성향과 내적 권태성향은 분노표현, 즉 분노행동과 각기 다른 관계를 보여주었다. 외적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권태를 느끼는 청소년들은 외부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분노경험에 대해 반추하는 경향

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내적인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기 어려워 권태를 느끼는 청소년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자기감정의 비공격적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분노를 잊어버리기 위한 활동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권태성향과 분노행동 간의 이런 관계는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 Type A 성향을 고려한 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분노를 이해하는 데 있어 외적 및 내적 권태성향이 중요한 구성개념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은 첫째, 남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성별, 연령별 비교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분노행동에 있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직접표출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여학생은 사회적 지지 추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결과(조현춘, 이근배, 2007; Linden et al., 2003)와 권태성향에 있어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연구보고(Linden et al., 2003)를 고려해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권태성향과 분노행동 간의 관계에 있어 남녀 간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간의 비교를 통해 발달 수준에 따른 권태성향과 분노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노행동척도는 다양한 분노표현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지만 국내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루어진 검사이므로(조현춘, 이근배, 2007),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대상의 타당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를 통한 측정만이 이루어졌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권태 및 분노행동에 대한 행동관찰, 친구 및 부모평가와 같은 측정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분노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권태성향이 본 연구에 포함된 충동성, 감각추구, 낮은 인내력, 그리고 Type A 변인들보다 더 큰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적대적 사고 및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 다른 관련 변인들(Farmer & Sundberg, 1986; Martin & Dahlen, 2004)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방법론적 측면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외적 권태성향과 내적 권태성향 각각에 대해 상, 하위 20%를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일원다변량분석을 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이원다변량분석을 통해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노행동 예측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만을 실시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권태성향이 충동성, 감각추구성향 등의 변인들과 상호작용하여 분노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이들 변인들을 매개로 하여 분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함으로써 권태성향과 분노행동 및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더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배경미(2003). 성격특성과 권태성향 및 음주행동의 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권석만(2006). 내담자 집단의 분노와 우울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임상*, 제25권 제2호, pp.417-427.
- 유진·강필중(2003). 한국형 감각추구척도의 타당도 검증과 스포츠 참가 예측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pp.249-264.
- 유희정(1990). 관상동맥 심장병 환자의 심리적 특성-정신병적 반응성.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경순·김교현(2000). 분노억제경향과 문제해결이 분노 정서 경험과 혈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5권 제1호, pp.60-72.
- 이현수(1992). *충동성검사*. 서울:한국 가이던스.
- 조현춘·이근배(2007). 한국판 분노행동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2호, pp.489-503.
- 한덕웅·박준호(2003). 스트레스 사건에 관한 반복생각과 분노경험이 주관적 안녕과 건강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8권 제1호, pp.147-168.
- Ahmed, S. M. S.(199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oredom Proneness Scale.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71*, pp.963-966.
- Arnett, J.(1990). Drunk driving, sensation seeking, and egocentrism among adolesc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11*, pp.541-546.
- Ayoade, C.A. & Adegoke, A.A.(2007). Boredom proneness and deviant behaviors among selected adolescents in osun state, Nigeria. *The Nigerian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Vol. 12 No. 1*, pp.149-162.
- Barratt, E.(1959). Anxiety and impulsiveness related to psychomotor efficiency. *Perceptual and Moto skills, Vol. 9*, pp.191-198.
- Berlyne, D. E.(1960).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NY:McGraw Hill.
- Bernstein, H.(1975). Boredom and readymade life. *Social research, Vol. 42*, pp.512-537.
- Blaszczynski,A., McConaghy, N., & Frankova, A.(1990). Boredom proneness in pathological gambling. *Psychological Reports, Vol. 67*, pp.35-42.

- Boden, J.(2009). The devil inside: boredom proneness and impulsive behavior. In B.D. Pezze & C. Salzani (Ed). *Critical Studies*, pp.203-226. Rodopi.
-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3, pp.452-459.
- Dahlen, E. R., Martin, R. C., Raga, K., & Kuhlman, M.(2004). Boredom proneness in anger and aggression: effects of impulsiveness and sensation seek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 37, pp.1615-1627.
- DiGiuseppe, R., Leaf, R., Exner, T., & Robin, M. W.(1988). *The development of a measure of rational/irrational thinking*.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Congress of Behavior Therapy, Edinburgh, Scotland, September.
- Farmer, R., & Sundberg, N. D.(1986). Boredom proneness-The development and correlates of a new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0, pp.4-17.
- Ganley, R. M.(1989). Emotion and eating in obesity: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ating Disorder*, Vol. 8, pp.343-361.
- Goredon, A., Wilkinson, R., McGown, A., & Jovanoska(1997).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boredom proneness scale: an examination of its validity. *Psychological Studies*, Vol. 42, pp.85-97.
- Green, K., Krmar, M., Walters, L. H., Rubin, D. L., & Hale, J. L.(2000). Targeting adolescent risk-taking behaviors: The contribution of egocentrism and sensation-seeking. *Journal of Adolescence*, Vol. 23, pp.439-461.
- Haynes, S. G., Levine, S., Scotch, N., Feinleib, M., & Kannel, K. W.(1978). Original contributions: The relationship of psychosocial factors to coronary heart disease in the Framingham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Vol. 107, pp.362-383.
- Kass, S. J., & Vodanovich, S. J.(1990). Boredom proneness: Its relationship to Type A behavior pattern and sensation seeking.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Vol. 27, pp.7-16.
- Kass, S. J., Vodanovich, S. J., & Callender, A.(2001). State-trait boredom: Relationship to absenteeism, tenure,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Vol. 16, pp.317-327.

- Linden, W., Hogan, B. E., Rutledge, T., Chawla, A., Lenz, J. W., & Leung, D.(2003). There is more to anger coping than "In" or "out". *Emotion, Vol. 3 No. 1*, pp.12-29.
- Maroldo, G. K.(1986). Shyness, boredom, and grade point average among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Vol. 59*, pp.385-398.
- Martin, R. C., & Dahlen, E. R.(2004). Irrational beliefs and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Journal of Rational-Emotive and Cognitive Behavior Therapy, Vol. 22*, pp.3-20.
- Rupp, D. E., & Vodanovich, S. J.(1997). The role of boredom proneness in self-reported anger and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12 No. 4*, pp.925-936.
- Spielberger, C. D.(1996).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pielberger, C. D.(1999). *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Revised*.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unberg, N. D., & Bisno, H.(1983). Boredom at life transition: Adolescence and old age. *Paper presented at the 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Meetings*, San Francisco, CA, U.S.A.
- Sundberg, N. D., Latkin, C. A., Farmer, R., & Saoud, J.(1991). Boredom in young adults: Gender and cultural comparison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22*, pp.209-223.
- Vodanovich, S. J., & Kass, S. J.(1990). A factor analytic study of the Boredom pronenes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19 No. 1*, pp.43-49.
- Vodanovich, S. J., Wallace, J.C., & Kass, S. J.(2005). A confirmatory approach to the factor structure of the boredom proneness scale: evidence for a two-factor short form.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85 No. 3*, pp.295-303.
- Watt, J. D., & Vodanovich, S. J.(1992). An examination of race and gender differences in boredom pronenes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7*, pp.169-175.
- Zuckerman, M., Kolin, E. A., Price, L., & Zoob, I.(1964). Development of a sensation seek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8*, pp.477-482.

## ABSTRACT

### The Proneness to Boredom in the Behavioral Anger of Male High School Students : The Effects of Impulsiveness, Sensation Seeking, Low Frustration Tolerance, and Type A Personalities

Lim, Jee-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the proneness to boredom in behavioral anger. In addition, the factors of impulsiveness, sensation seeking, low frustration tolerance, and Type A personalities were included to determine the potential effects of these variabl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proneness to boredom and behavioral anger. Two hundred and eighty-one high school boys were administered measures of proneness to boredom, behavioral anger, impulsiveness, sensation seeking, low frustration tolerance, and Type A personalities. Our results demonstrated that external or internal proneness to boredom had different effects on behavioral anger.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external proneness to boredom and direct anger-out and rumination, and those between internal proneness to boredom and assertion and avoidance persisted even after accounting for impulsiveness, sensation seeking, low frustration tolerance, and Type A personalities.

**Key Words** : proneness to boredom, behavioral anger, high school students

투고일 : 12월 6일, 심사일 : 1월 25일, 심사완료일 : 2월 9일

---

\* Hoseo University

